

한국철학논집 제64집(2020.02)

한국철학사연구회

10.35504/kph.2020..64.005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문인 집단 형성과 전개*

— 『채미연원록(菑薇淵源錄)』을 중심으로 —

박 학 래(Park, Hak Rae)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교수, phr@kunsan.ac.kr)

- I. 들어가는 말
- II. 최익현의 강학 활동과 문인 집단의
형성
 1. 지속적인 강학 활동의 전개
 2. 강학을 통한 도(道)의 체득과 실천
의 강조
- III. 문인들의 활동과 학맥의 계승
 1. 문인록의 간행과 문인들의 결집
 2. 직전 제자군의 형성
 3. 문인들의 학문 활동과 학맥의 계승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논문 요약>

19세기 후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 운동을 주도한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화서학과 문인 가운데 가장 거대한 문인 집단을 형성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40세를 전후한 시기부터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생전에 6백여 명을 상회하는 문인 집단을 형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신의 근거지인 경기 포천과 말년에 이거한 정산(현 충남 청양)을 중심으로 펼쳐진 강학 활동을 통해 배출된 직전 제자들은 그와 함께 의병 활동의 전면에서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익현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문인 양성에 몰두하여 1천5백여 명을 상회하는 재전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최익현의 학맥은 사전 제자에까지 2천5백여 명을 상회하는 문인 집단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익현의 강학 활동과 그의 문인 집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학파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진행된 것과 달리 최익현의 문인 집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학계의 현실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한점에 유의하고, 아울러 20세기에 접어들어 활동한 각 학파의 문인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학계 상황을 고려하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진 최익현의 문인 집단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그 대체적인 모습을 정리하였다. 문인 집단 분석에 앞서 문인 집단 형성의 근본이 된 최익현의 강학 활동을 그의 행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1967년 최익현의 직전 제자 및 재전 제자가 중심이 되어 간행한 『채미연원록(菑薇淵源錄)』이며, 이 문인록에 앞서 간행된 『면암선생문인록(勉菴先生門人錄)』 등 기타 자료도 참조하였다.

『채미연원록』의 문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최익현의 학맥은 호남 지

역을 중심으로 계승되었으며, 최익현의 문인들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사 전개 속에서 유학의 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 이외에 강한 항일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면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익현의 문인들은 지속적으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화서학과 학맥과 구분되는 인식과 면모를 보여 ‘면암학과(勉菴學派)’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면암선생문인록(勉菴先生門人錄), 채미연원록(菑薇淵源錄), 勉菴學派, 근현대 한국유학.

I. 들어가는 말

19세기 이후 기호학계는 문호 분립과 학파 분화를 통해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학계 지형을 구축하였다. 특정한 사승 관계없이 독자적인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하며 기호학계의 대표 학자로 부상한 이항로(李恒老, 1792~1868)와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은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통해 각각 ‘화서학파(華西學派)’와 ‘노사학파(蘆沙學派)’를 구체화하였으며, 오희상(吳熙常)과 홍직필(洪直弼) 등 낙론계 산림학자의 학문적 영향력 아래 성장한 유신환(兪莘煥, 1801~1859)과 임헌晦(任憲晦, 1811~1876)도 문하에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하여 각각 ‘봉서학파(鳳棲學派)’와 ‘고산학파(鼓山學派)’라는 유력한 문인 집단을 형성하였다.

위정척사운동의 1세대에 해당하는 이항로를 비롯한 기호학계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구체화된 문인 집단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들 학맥을 계승한 직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파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화서학파의 경우는 김평묵(金平默, 1819~1891), 박문일(朴文一, 1822~1894), 유중교(柳重教, 1832~1893),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유인석(柳麟錫, 1842~1915)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강학 활동을 통해 많은 재전 제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위정척사를 이은 의병 활동의 선두에서 활약하였다. 노사학파도 기정진의 손자인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을 비롯하여 기정진 문하의 3대 제자로 일컬어지는 정재규(鄭載圭, 1843~1911), 정의림(鄭義林, 1845~1910) 등 주목할 만한 직전 제자들의 문하에서 많은 문인이 배출되어 학파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대체적으로 문인관료로 구성되었던 봉서학파는 유신환 사후에 상대적으로 학맥 계승의 면모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임헌晦의 고제로 평가받았던 전우(田愚, 1841~1922)는 강학지였던 호서 및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학파의 외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간재학파(艮齋學派)’라는 커다란 문인 집단을 형성하였다.

19세기 기호학계의 1세대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문인집단이 직전 제자들의 강학 활동을 통해 그 외연이 확대하는 가운데, 송시열로부터 연원하는 가학을 기반으로 낙론계 산림학자였던 송치규(宋禔圭, 1759~1838)를 거쳐 송달수(宋達洙, 1808~1903)로 이어진 학맥을 계승한 송병선(宋秉璿, 1836~1905)과 송병순(宋秉珣, 1839~1912) 형제는 호서 및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재학과(淵齋學派)’라는 비중 있는 문인집단을 형성하였으며, 낙론 계열의 함경도 출신 학자인 박세화(朴世和, 1834~1910)도 충청 북부와 경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당학과(毅堂學派)’를 구체화하였다. 상대적으로 19세기 접어들어 위축되었던 호론 계열에서도 김복한(金福漢, 1860~1924)과 이설(李偈, 1850~1906) 등을 중심으로 문인 집단의 형성을 가시화하여 실천 지향적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9세기 초중반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기호학계의 문호 분립과 학과 분화 등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적지 않은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¹⁾ 하지만 기존 연구는 각 학과의 종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시한 학문과 사상, 혹은 그들로부터 연원하는 직전 제자들의 학문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각 학과에 대한 분석도 대체적으로 각 학과의 종장들이 배출한 직전 제자군에 대한 분석에만 머물러 각 학과의 전체 규모와 직전 및 재전 제자들을 통해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진 학맥 계승의 면모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하는 기호학계의 여러 학과는 직전 및 재전 제자들을 거쳐 그 학맥이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1900년을 전후한 위기 상황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유교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1) 1999년에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근대의 유교학맥과 민족운동’을 주제로 연이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화서학파를 비롯한 기호 및 영남학계의 주요 학파를 검토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여러 학술단체 및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이 시기 문인 집단 및 주요 문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인록 발간 등을 통해 학파의 면모를 확인하는 등 학파 내부의 결속을 진행하였다.

19세기 이후 형성된 기호학계의 여러 학파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한점을 드러난 선행 연구와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진 기호학계의 각 학파들이 보여준 학맥 계승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화서학파의 대표적인 문인 중 한 사람인 최익현에 의해 구체화되고 최익현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학맥이 계승되어 문인 집단으로서의 면모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는 최익현의 문인 집단을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최익현은 화서학파 문인 가운데 드물게 관계(官界)에 진출한 관료이자 지속적인 상소운동을 전개하며 실천 지향적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 활동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중기 의병을 이끈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이에 따라 최익현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그의 학문적 지향 내지 의병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²⁾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문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³⁾ 이에 따라 화서학파 내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하고 그의 학맥이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최익현의 강학 활동과 함께 그의 문하에 결집된 직전 제자들의 면모와 대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고, 나아가 재전 및 삼전 제자들로 이어진 문인

2) 최익현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朴敏泳, 「勉菴 崔益鉉의 상소 항일투쟁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3, 533쪽 참조.

3) 화서학파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저작 활동을 하고 있는 張三鉉은 이항로 및 직전 제자들의 강학 활동을 정리하면서 최익현의 강학 활동을 간단히 정리한 바 있다. 張三鉉, 『화서학파의 충의효열록』, 양평문화원, 2002, 70~72쪽. 김상기는 19세기 후반 이후 호서 지역의 기호학파 및 화서학파에 대해 연구를 통해 최익현의 정산 이거 이후에 이 지역에 형성된 그의 문인들을 일부 정리하였다. 김상기, 「호서지역 화서학파의 형성과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제35집, 1999, 64~66쪽.; 「한말 일제하 내포 지역 기호학파의 형성」, 『한국사상사학』 제22집, 2004, 387~389쪽.

들을 통해 그의 학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이 제자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최익현의 문인집단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면암선생문인록(勉菴先生門人錄)』을 비롯하여 1960년대에 최익현의 직전 및 재전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간행한 『채미연원록(菴薇淵源錄)』, 그리고 1999년에 간행된 화서학과 문인들을 망라한 『벽계연원록(蘖溪淵源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여러 문인록 가운데 본고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직전 및 재전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통문을 돌린 후 그것을 수집하여 간행한 『채미연원록』을 중심으로 최익현의 문인집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⁴⁾ 아울러 『면암집(勉菴集)』 및 여타 저작을 통해 확인되는 강학 내용을 확인하여 학문 수수 내용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최익현의 강학 활동과 문인 집단의 형성

1. 지속적인 강학 활동의 전개

화서학과 문인 가운데 김평목, 유종교 등이 재야에 머물며 학문 연구와 강학 활동에 매진했던 것과는 달리, 최익현은 20대 초반에 과거에 급

4) 후술하겠지만, 『菴薇淵源錄』은 최익현의 재전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통문을 돌려 수합한 후 이것을 편집하여 간행한 문인록이다. 최익현의 직계 문인들에 의해 간행된 만큼 최익현의 문인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인록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문인록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직전 제자들에 의해 간행된 『勉菴門人錄』도 신뢰성이 높지만, 간행 당시에 제한적으로 확인된 직전 제자들만을 수록되어 등재 문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전 및 삼전 제자들이 수록되지 않아 문인 집단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蘖溪淵源錄』은 화서학과 문인들을 총망라하여 가장 많은 문인이 수록되어 있지만, 최익현의 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체계성과 신뢰성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익현의 제자들에 의해 직접 편집되고 간행된 『菴薇淵源錄』을 대상으로 최익현 문인 집단을 분석하였다.

제하여 관직에 입문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을 관료로 재임하였다. 이에 더하여 30대 중반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소 운동을 전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소 내용이 화근이 되어 두 차례에 걸쳐 유배에 처하는 등 굴곡진 삶을 영위하였다. 더구나 을사늑약(1905) 체결 이후에는 의병 활동의 중심에서 활약한 만큼 다른 문인에 비해 체계적인 강학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그는 이항로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며 일찍부터 강학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말년까지 지속되었다.⁵⁾ 관료로 재임하면서도 최익현은 틈틈이 문인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유배 이후 고향인 포천과 이후 이거한 정산(定山, 충남 청양)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화서학과 문인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면암집』의 「연보」와 여러 저술을 통해 볼 때, 최익현의 문하에 문인들이 운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전개한 상소 운동과 결부하여 문인 관료로서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한 것이었다. 최익현은 경복궁 중건 사업을 비롯한 대원군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장령시언사소(掌令時言事疏)」(1868)를 올려 조야로부터 막혔던 언로(言路)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고,⁶⁾ 우여곡절 끝에 관직에 복귀한 1873년(고종 10)에 그는 다시 대원군의 권력 남용을 통렬히 비판하는 「사동부승지소(辭同副承旨疏)」를 올려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⁷⁾ 관료로 재임하며 최익현이 올린 일련의 상소는 충직한 개혁 관료로서 그의 정치적 명성을 전국적으

5) 최익현은 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03년에 이항로의 강학처인 벽계를 찾아 이항로의 祀孫인 李承祖와 의논하여 講修契를 설립하기로 하고 계첩 서문을 작성하였다. 『勉菴集』 卷19, 16b~18a, 「講修契帖序」 그리고 강수계 성금으로 5백 냥을 희사하였다. 張三鉉 편, 『藥溪淵源錄』, 「講修契員及獻誠錄」, 430쪽.

6) 『勉菴集』 附錄 卷1, 13b, 「年譜」, 36歲條, “時言路杜塞, 民情倒懸, 而先生之疏一出, 中外翕然, 君子稱鳳鳴朝陽, 野人呼太平萬世, 先生之名, 滿一國, 自此始矣.”

7) 『勉菴集』 卷3, 22a~24a, 「辭同副承旨疏」(癸酉十月十六日).

로 부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항로의 고제 중 한 사람이었던 만큼 학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에 호조참판을 사임하며 외척의 정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긴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로 인해 제주로 유배되었을 때.⁸⁾ 제주 지역 내의 명망 있는 유림은 물론,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는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호서의 유림들이 그를 찾아 문인으로 자정하였다.⁹⁾

최익현이 1875년(고종 12) 3월까지 이어진 2년여 간의 제주 유배시기에 여러 문인들을 문하로 받아들인 것은 이후 그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의 노사학과 문인인 안달삼(安達三, 1837~1886)과 광주에서 도해한 노사학과 일원이자 그의 문인이 된 박해량(朴海量, 1850~1886)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기정진의 여러 저술은 그가 이후 기정진 및 그의 문인들과의 교류는 물론, 호남 지역에 그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¹⁰⁾ 최익현은 해배 이후 가장 먼저 장성에서 강학하던 기정진을 찾아 존경의 뜻을 밝혔으며¹¹⁾ 이후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연대 의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여러 유림들과 깊이 있는 유대 관계를 조성하였다. 아울러 최익현은 그의 선조인 최치원(崔

8) 『勉菴集』 卷3, 24a~33a, 「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癸酉十一月三日).

9) 『勉菴集』 附錄 卷1, 36a, 「年譜」, '41歲條'. 최익현이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 그의 유배지를 찾은 유림은 안달삼, 金義正, 姜基碩, 金龍徵, 金堧, 金致瑢, 金養洙 등 제주 문인 이외에 湖西 지역의 孟文浩, 崔榮煥, 호남 지역의 崔勝鉉, 朴海量, 金孝煥, 金衡培, 安璉煥, 李弼世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안달삼과 박해량은 기정진의 문인이다.

10) 『勉菴集』 付祿 卷1, 40b, 「年譜」, '43歲條'. 최익현은 어려서부터 기정진의 학문적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때 비로소 그의 학문이 담긴 저작을 직접 열람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화서 선생의 旨訣과 대략 비슷하다.'라고 평가하고, 기정진의 저술을 謄抄하여 2책으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11) 최익현은 시를 통해 기정진을 程頤에 비유하는 등 존숭의 뜻을 확인하였고(『勉菴集』 卷1, 19a, 「拜下沙奇丈(正鑣)」), 1901년에는 기정진의 신도비명을 찬술하였다.(『勉菴集』 卷1, 38a~46a, 「蘆沙先生奇公神道碑銘」)

致遠)을 주향으로 하는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을 참배하는 등 전북 유림과의 인연을 맺는 등 호남의 전 지역에 걸쳐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¹²⁾

해배 이후 관직 생활을 청산한 최익현은 고향 포천에 거주하며 자신을 찾아오는 여러 지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876년 1월에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조헌(趙憲)의 고사(古事)를 본받아 도끼를 짊어지고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다.¹³⁾ 이전까지의 상소가 대체적으로 내정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때부터의 상소는 본격적으로 개항 반대의 뜻을 표명한 척사의 소산이었다. 일제의 야욕을 간파하고 이를 경고한 이 상소로 인해 그는 그해 2월에 다시 흑산도로 유배되었고, 이곳에서 1879년까지 지역의 학동을 가르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때에도 최익현은 전국 각지에서 그의 유배지를 찾은 유림들과 사제의 연을 맺었으며,¹⁴⁾ 해배 후 최익현은 다시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호남 지역 내 유력 문인들과 인연을 맺고 강학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¹⁵⁾

12) 최익현 문인집단의 주요한 기반 중 하나는 慶州崔氏 가문의 인사들(48명)이었다. 최익현 문인 가운데 적지 않은 경주최씨 가문 인사들이 포함된 것은 그가 일찍부터 문중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고, 호남 및 영남 지역에 산재한 최치원 관련 서원들을 찾아 추승작업을 진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3) 『勉菴集』 卷3, 16b~20a, 「持斧伏闕斥和議疏」(丙子正月二十二日).

14) 『勉菴集』 付祿 卷2, 7a, 「年譜」, '44歲條. 「연보」에는 이때 “사방에서 선생의 의리를 사모하는 이가 흑산도로 많이 들어와 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함경도 端川 출신의 崔永皓라고 특기하고, 김평묵이 그를 위해 「崔永皓入黑山島記」를 지었다고 적었다. 최영호 이외에 앞서 제주를 찾았던 박해량을 비롯하여 창평 출신의 金懿鉉, 순천 출신의 趙鍾憲 등이 흑산도를 찾았고, 영암의 아전인 河權默과 나주의 아전인 孫台孝도 방문하였다. 이밖에 함평 출신의 金勳도 흑산도를 찾아 최익현과 학문을 강론하였다. 김익현의 경우는 1875년 최익현을 방문하여 인연을 맺었고, 이 인연을 계기로 흑산도를 방문하였다. (『勉菴集』 卷20, 5b, 「誠軒記」 참조)

15) 『勉菴集』 付祿 卷2, 14a, 「年譜」, '47歲條. 해배 후 최익현은 광주의 河南을 찾아 박해량의 부친인 朴鼎鉉과 만남을 가졌고,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인근

혹산도 해배 이후 최익현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하에서 근 15년 동안 시사(時事)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학문 연구와 강학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가 이 시기에 자정(自靖)의 태도를 견지한 이유는 늙은 부모의 봉양 등 가정사와 더불어 두 차례에 걸쳐 유배 생활로 인해 심신이 지친 사정도 있었지만, 평소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동문 선배인 김평묵의 조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¹⁶⁾ 자신의 근거지인 경기 포천을 중심으로 은거에 들어간 최익현은 전국 각지에서 그를 찾는 문인들을 문하로 받아들이는 한편,¹⁷⁾ 화서학과 동문 및 자신의 문인들과 더불어 강론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⁸⁾ 그리고 이항로 문인 내부에서 불거진 스승 이항로의 심설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유중교를 비롯한 일부 문인의 학설을 비판하는 등 이항로 학설에 대한 계승 의식을 뚜렷이 하였다.

갑오경장(1894)이 단행되고 이어 을미사변(1895)과 단발령(1895)이 이어지자 최익현은 다시 상소 운동을 시작하여 갑오경장 이전으로 관제와 의제 등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청토역복의제소(請討逆復衣制疏)」

의 유림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론을 펼쳤다.

- 16) 『勉菴集』 付祿 卷2, 15a, 「年譜」, 47歲條. 최익현이 해배되자 김평묵은 七言律詩 3首를 보내어 최익현이 향후 은거하며 다시는 시사를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
- 17) 『勉菴集』 卷6부터 卷16, 그리고 『勉菴集』 續集 卷1, 2에 수록된 편지는 총 882편이다. 그 가운데 李恒老를 비롯하여 奇正鎮, 金平默, 柳重教, 奇宇萬, 鄭載圭 등 스승 및 화서학과 동문, 그리고 노사학과 문인 등 교유 인사를 제외한 그의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발신 연도는 1875년부터 1906년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정산으로 이거하던 해인 1900년 이전에 문인들에게 발신된 편지가 320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익현이 문인들을 받아들이며 강학 활동을 본격화한 시기는 1879년부터의 은거기라 할 수 있다.
- 18) 「연보」에 따르면, 최익현은 1882년 5월에 최익현은 松橋에서 강론을 펼쳤고(『勉菴集』 付祿 卷2, 17b, 「年譜」, '50歲條'), 1884년 12월에는 가평의懸燈山에서 독서를 하던 아들 崔永祚를 찾았다가 이곳을 들른 李光教와 더불어 강론을 펼쳤다.(『勉菴集』 付祿 卷2, 19b, 「年譜」, '52歲條')

(1895)를 올렸다. 을미사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그를 선유대원(宣諭大員)에 임명했지만, 최익현은 그 직을 사임하며 다시 상소를 올렸다.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의정부 찬정(贊政) 등을 제수하며 그를 회유하려 하였지만, 최익현은 일체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상소 운동을 지속하였다.

개항 반대와 내정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최익현은 강학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1899년 9월 포천의 선비들과 향약을 설치하여 지역 내에 유학적 기풍을 강화하는 한편, 이듬해에는 가평 조종암(朝宗巖)의 황단제향(皇壇祭享)에 참석한 후 재실에서 강회를 베푸는 등 강학 활동에 주력하였다. 화서학과 내부에서 이항로의 심설 계승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자 최익현은 문인 내부에 분란을 일으킨 유기일(柳基一, 1845~1904)에게 편지를 보내 스승을 배반한 죄를 논하는 등 화서학과 문인의 결속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00년에 이르러 최익현은 자신의 근거지인 포천을 떠나 충남 정산으로 이거하였다. 그가 정산으로의 이거를 단행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암울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정산 이거 직후 문인들을 대동하고 영남 지역으로의 유력(遊歷)을 진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정산으로 집을 옮긴 지 한 달 만에 문인 몇몇을 대동한 채 경주로의 유력을 떠나 강원, 충청, 경상을 두루 순방하였으며, 순방 지역 곳곳에 산재한 선배 유현들의 유적을 방문하는 한편, 이전부터 교류하던 인사 및 그들의 자제, 그리고 문중 인사들과의 교류를 진행하였다.¹⁹⁾ 특히 그는 경주와 대구 등지에서는 이 지역의 유림들과 강론을 펼치고 향음례(鄉飲禮)를 진행하는²⁰⁾ 등 자신의 학문과 사상적 지향을 지역 인사들과 공유하였다.²¹⁾

19) 『勉菴集』 付祿 卷3, 7a~b, 「年譜」, '68歲 5月條.

20) 『勉菴集』 付祿 卷3, 7b, 「年譜」, '68歲條. 경주 狼山書堂의 書臺에서 지역 사우들과 강론하였으며, 대구에서는 徐贊圭와 함께 향음례를 진행하였다.

정산 이거 이후 최익현은 강학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영남 지역 유력을 마친 후 그는 정산의 거처에 마련한 구동정사(龜洞精舍)에서 많은 문인을 대상으로 강론을 펼쳤다.²²⁾ 1901년에는 송병선의 초청을 받아 임피의 낙영당(樂英堂)에서 진행된 대규모 강회에 참석하여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펼쳤다. 임피 강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그는 김평묵과 유중교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후 보령으로 이거하여 강학 활동을 전개하던 윤석봉(尹錫鳳, 1842~1910)을 비롯하여 김복한, 신태진(申泰鎭), 신헌(申榘) 등 호서 지역의 주요 학자들을 만나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음례를 주관하는 등 호서 지역의 유풍 진작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훗날 문인으로 자정하는 신태진, 신헌을 대동하고 선조인 최치원과 관련된 옥구의 자천대(紫泉臺)를 방문하기도 하였다.²³⁾ 정산에서의 지속적인 강학과 더불어 호서 지역 학자들과의 교류 및 임피 강회 참석은 호서 및 호남 지역에 대한 그의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학과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 통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익현은 정산에서의 강학을 지속하면서 1902년에 지리산으로의 유력을 단행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 문인 곽한소(郭漢紹, 1882~1927)를 대동하고 나선 지리산 유력 과정에서 최익현은 먼저 옥천과 영동에서 강학하던 송병선 형제를 찾아 학문적 유대를 확인하였으며,²⁴⁾ 이후 방문하는 지역의 많은 선비들을 대상으로 강론을 펼치는 한

21) 「연보」에는 최익현이 경주 유람을 마친 후 『南征錄』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문집에는 이 저작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2) 정산의 구동정사를 찾은 문인들과 강론을 펼친 후 그 소회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勉菴集』 卷2, 12b, 「湖南諸生來顧龜洞講後拈韻」.

23) 『勉菴集』 付祿 卷3, 8a~7b, 「年譜」, '69歲條」.

24) 지리산으로의 유력 초반에 송병선 형제를 방문한 것은 『蘆沙集』 重刊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학문적 유대 및 시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902년에 중단된 『노사집』은 간행 과정에서 영남의 연재학과 문인들로부터 기정진의 「猥筆」 등이 울곡의 학설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비판은 기호학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20세기 초반 기호학계의 최대 논쟁으로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익현이 찬술한 기

편, 정재규와 최숙민(崔淑民) 등 영남 지역의 노사학과 문인들과의 교류도 강화하였다. 지리산 유력은 앞서 단행한 경주 유력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물론, 그의 문하로 이 지역 유림들이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최익현은 1902년에 문인을 대동하고 포천 선영을 찾고,²⁵⁾ 이듬해에는 화서학과의 근거지인 양평을 방문하는 등 자신의 근거지였던 경기 지역에 대해서도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²⁶⁾ 그리고 1904년에는 정산 향교에서 향음례를 진행하는 등 거주 지역의 유풍 진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²⁷⁾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고종은 유림의 중망을 얻고 있던 최익현을 다시 등용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였고, 1903년부터 연이어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다. 하지만 최익현은 상소를 올리고 일체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상소문의 내용으로 인해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1905년에 이르러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다시 상소문을 통해 조약의 폐기와 더불어 을사오적의 주벌을 요구하는 한편, 여러 문인들과 사우들을 노성(魯城)의 궐리사(闕里祠)에 결집시켜 강회를 개최하여 함께 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이 내용이 알려져 궐기하기로 한 약속은 무산되고 말았다.²⁸⁾

최익현은 송병선의 순국 소식을 접한 후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급

정진의 신도비명 내용도 논쟁점으로 부각되어 송병선의 비판을 받았고, 최익현은 후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학래, 「蘆沙 奇正鎭의 性理說을 둘러싼 기호학계의 논쟁 - 「猥筆」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48, 2008.; 김봉곤, 「蘆沙學說에 대한 淵齋學派의 批判」, 『韓國思想史學』 33, 2009 등 참조.

- 25) 문인 曹在學과 郭漢紹를 대동한 포천 방문 길에 최익현은 수원의 궐리사를 방문하여 유교 전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勉菴集』 付祿 卷3, 11b, 「年譜」, 「70歲條」.
- 26) 『勉菴集』 付祿 卷3, 12b, 「年譜」, 「71歲條」.
- 27) 『勉菴集』 付祿 卷3, 13b~14a, 「年譜」, 「72歲條」.
- 28) 『勉菴集』 付祿 卷3, 42a~b, 「年譜」, 「73歲條」.

기야 1906년 2월에 노구를 이끌고 창의를 위해 호남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영남 및 호남 유림을 주도하던 곽중석(郭鍾錫), 전우 등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구국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권하였지만 호응이 없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최익현은 문인 고석진(高石鎭, 1856~1924)을 통해 임병찬(林炳贊, 1851~1916)을 창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등 본격적인 창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창의하여 정읍, 순창, 곡성 등지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의진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결국 일제에 의해 의병은 무너졌고, 최익현은 피체된 후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대마도로 압송되어 구금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병찬에게 유소(遺疏)를 구술해 준 후 1906년 11월에 순국하였다. 창의 과정에서도 임병찬을 비롯한 다수의 뜻 있는 유림들이 의진에 참여하고 최익현의 문인으로 자정하는 등 최익현의 문인 집단은 강학 이외에 의병 활동을 통해서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2. 강학을 통한 도(道)의 체득과 실천의 강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익현은 제주 유배 시기부터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신의 근거지인 포천과 말년에 이거한 정산을 중심으로 자신의 처소로 모여든 전국 각지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된 그의 강학 활동은 말년에 그가 주도한 창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정도로 지속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다른 학자들과 달리 최익현의 강학 활동은 특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학규(學規)나 강규(講規)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강학의 내용 또한 별도의 저작으로 남겨지지 않았다.²⁹⁾ 그렇다고 최익현의 강학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최익현은 강학 내용을 별도의 저작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문인들

29) 柳重教는 「書示同業諸君」, 「書社旬講儀」 등을 통해 강학과 관련한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자신의 강학 내용을 『柯亭書社旬講錄』, 『柯亭講錄』 등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자가 확인한 『勉菴集』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에는 최익현의 강학과 관련한 강규나 학규 및 강학 내용이 담긴 저술이 없다. 문인들의 문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그 내용의 일단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최익현과의 문답 내용을 별도의 저작으로 남긴 문인들의 저술을 통해 그의 주요한 강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최익현은 문인들에게 일상의 절근처를 우선하는 하학(下學)을 강조하며 먼저 경전부터 차분히 읽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원한 성리학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에 앞서 무엇보다도 유학의 근본이 담긴 경전에 대한 차분한 독서를 통해 유학의 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였으므로 “이기(理氣) 등의 글자는 잠깐 놓아두고 다만 절근한 곳으로부터 나아가 글자는 그 뜻을 자세히 찾고 구절은 그 의미를 풀어내어 조용히 접근해야야 현공(玄空)으로 치달리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이 독서하는 방법”³¹⁾이라고 역설하였으며, 또 “넓고 큰 바다도 줄줄 흐르는 시냇물에 근원하고 만리(萬里)의 먼 길도 반 발자국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군자의 도는 가깝고 작은 것을 먼저한 다음에 멀고 큰 것에 이르는 것도 동일한 이치”라고 강조하였다.³²⁾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율곡의 『격몽요결』과 주자의 『소학』을 시작으로 하여 밤낮없이 끊어짐이 없이 노력한다면 곧 『역』에서 말한 ‘불원복(不遠復)의 경지가 될 것’³³⁾이라 하며 하학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익현이 문인에게 강조한 독서는 기본적으로 道의 체득 및 실현과 결부된 것이었다. 그는 『격몽요결』 등 초학서에 이어 유거 경전 전체에

30) 朴海量은 1875년 포천을 찾아 최익현에게 경전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의난처에 대해 질정하고 그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崑山講說」을 저술하였다. 『聿修齋遺稿』 卷5, 33b~38b, 「崑山講說」

31) 『勉菴集』 卷13, 53b, 「答崔仲說(濟學)」, “第理氣等字, 姑且置之, 只從切近處, 字究其訓, 句釋其旨, 從容襯貼, 不遂爲馳騫玄空之歸, 是讀書之法也.”

32) 『勉菴集』 卷16, 36b~37a, 「書贈金氏僉少年(金榮鳳, 金鍾基, 金俊基, 金德基, 金洪基)」, “滄海之大, 源於涓流, 萬里之遠, 始自跬步, 君子之道, 先其近者小者而後, 及其遠者大者, 同一理也.”

33) 『勉菴集』 卷16, 36b~37a, 「書贈金氏僉少年(金榮鳳, 金鍾基, 金俊基, 金德基, 金洪基)」, “自今日爲始, 只從石潭要訣, 晦翁小學上, 晨夕用工, 無些間斷, 則乃易所謂不遠復者, 諸君其勉矣哉.”

대한 독서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경전에 성인의 도가 담겨져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인의 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는 반드시 ‘경전’에서 구하여야 한다. 경전이란 성인의 도가 실려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어 오경(五經) 각각의 의미를 밝힌 후, “오경은 성현이 마음으로 전수한 요지와 제왕들이 경세(經世)하던 법칙이 모두 여기에 실려 있으니, 이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⁴⁾ 그리고 경전을 궁구하여 도를 구하고 음미하여 마음으로 이해하여 마음과 도가 하나로 융화되어 간격이 없어지면, 자득의 묘는 그 소이연을 알지 못해도 일심과 일신의 안에 근본하게 되고 일용이륜(日用彝倫)에서 징험하게 되어 종묘(宗廟)의 미(美)와 백관(百官)의 부(富)를 거의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⁵⁾

경전에 대한 독서와 이를 통한 도의 체득을 강조한 만큼 최익현은 이기심성론과 결부하여 당시까지 기호학계의 쟁점으로 부각한 여러 성리학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문인에게 피력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였다. 몇몇 제자들이 이기 관계를 비롯하여 성리설의 여러 주제에 대해 그에게 질정하였지만, 최익현은 말년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고원한 이론보다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도의 체득과 실천을 강조한 그의 입장과 더불어 문인 내부에 성리학적 입장과 관련하여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³⁶⁾

34) 『勉菴集』 卷19, 37b~38a, 「洪原經學齋青衿錄序」, “然則聖人之爲道也。曷從而求之。曰求之於經。經者, 聖人之道之所載也。易以明陰陽, 書以紀政事, 詩以理性情, 春秋以示王法, 禮以謹節文, 聖賢傳心之要, 帝王經世之法, 皆於是乎載焉。所謂道也。”

35) 『勉菴集』 卷19, 37b~38a, 「洪原經學齋青衿錄序」, “窮經以求夫道, 味道而會諸心, 心與道一, 融液而無間, 則自得之妙, 有莫知其所以然者, 本之於一心一身之內, 而驗之於日用彝倫之間, 宗廟之美, 百官之富, 庶幾得有一班之窺焉。”

36) 최익현은 『蘆沙集』 重刊과 관련한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작성한 기정진의 신도비명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송병선에게 편지를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창의를 뜻을 구체화하던 1905년 가을에 이르러 최익현은 이전까지의 입장에서 벗어나 문인들에게 태극(太極)을 비롯하여 화서학파의 최대 논쟁점이었던 심에 대한 이기론적 입장, 그리고 명덕주리주기논쟁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다.³⁷⁾ 이전까지 성리학적 논쟁점에 대해 언급을 삼갔던 그가 입장의 전환을 한 이유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성리학적 입장이 문인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인들에 대한 강학에서 최익현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여 유학의 도를 수호하고 의리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1900년을 전후하여 근대식 학제가 본격화되고 이적(夷狄)의 학문으로 치부하였던 서양의 학문이 범람하는 시대 상황 하에서 최익현은 유학의 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식을 강하게 문인들에게 천명하였으며, 시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실천적인 의리 정신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그는 1901년 4월의 임피 낙영당 강회에 참석하여 위정척사의 뜻을 분명히 하였으며, 1905년 12월에 열린 노성 귤리사에서 열린 강회에서는 당시 변란의 원인을 유학의 도가 밝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제하고, 세평에 구애됨 없이 유학의 도를 독실하게 믿고 실현해야 함을 역설하는 등 실천적인 7개 조목을 준행할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³⁸⁾

이렇듯 말년에 진행된 최익현의 강학은 유학의 도를 지키고 계승하는 의지는 물론, 시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리의 실천에 그 내용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의 문인들은 최익현과 함께

보내는 등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만큼 최익현은 유학계 내부의 논쟁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37) 『勉菴集』 卷16, 45b~47b, 「書示高淸汝 石鑣」. 문인 내부에서 고제로 평가받았던 고석진은 수십 년 전에 최익현의 문하에 입문한 이후 理氣의 主客 문제 등 성리설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최익현에게 하였지만, 최익현은 오랫동안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최익현은 “지금 죽을 날에 거의 임했으면서 끝내 한마디의 말이 없을 수 없다.”고 하고 구체적인 자신의 생각을 저술하여 고석진에게 주었다.

38) 『勉菴集』 卷16, 56a~59a, 「魯城關里祠講會時誓告條約」.

의병 활동의 전면에서 활약하는 등 실천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최익현에 대한 체로와 구금,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국의 뜻을 굽히지 않는 지사적 면모를 드러내는 등 실천지향적인 면모로 표면화되었다.

III. 문인들의 활동과 학맥의 계승

1. 문인록의 간행과 문인들의 결집

20세기를 관통하며 기호학계 여러 학파의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특징적 면모 중 하나는 자신들의 학문 연원이 되는 각 학파의 종장 내지 그 학통을 계승한 선배 문인의 문집을 간행하고 문인록을 발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각 학파의 중심인물이 주도하여 별도의 문인록을 간행하거나 혹은 문집의 부록 형태로 문인 명부를 정리한 것은 학문 연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문인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유학의 도를 수호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최익현과 함께 의병 활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정도로 최익현에 대한 존경과 문인 내부의 결속력이 남달랐던 최익현의 문인들도 다른 학파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최익현 사후에 무엇보다 문집 발간에 주력하는 한편, 문인록 발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07년 4월 최익현의 장례를 마친 문인들은 그의 아들이자 문인인 최영조(崔永祚, 1859~1927)가 평소 정리해 두었던 최익현의 초고 10여 책을 바탕으로 광한소, 문제보(文濟普, 1870~?), 광진중(郭進鍾) 등이 주축이 되어 원집(原集) 40권, 속집(續集) 2권, 그리고 부록 4권을 편차(編次)하여 이듬해 겨울에 활자로 인쇄하기 시작하였고, 1909년에 『면암집』 간행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면암집』은 배포 과정에서 항일의 뜻이 담긴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적지 않은 문집이 일제에 압수되었고, 문집 전체가 문인들에게 배포되지 못하게 되었다.³⁹⁾

문집 발간 이외에 문인 내부에서는 문인록 발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면암문인록』이 간행되었다.⁴⁰⁾ 활자본으로 간행된 이 문인록에는 간행 주체와 간행 연도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문인록 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형태적인 면에서 『면암집』 초간본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수록된 문인들의 생년을 표기하면서 高宗을 ‘상황(上皇)’이라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고종 사망(1919)하기 이전에 문집 간행 주체들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⁴¹⁾ 문인록 서두에 “서찰과 제문에서 문생(門生)이라고 칭한 자를 모두 입록(入錄)하였다.”⁴²⁾라고 밝히고 있어 문인록 간행을 위해 별도의 통문을 발송하는 등 특기할 만한 사전 작업 없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문인록이 편집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면암문인록』에는 214명의 직전 제자들이 등재되어 있다. 등재된 문인에 대해서는 이름과 자, 본관, 생년을 적시하고 있으며, 개별 문인 가

39) 고려대와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勉菴集』은 일제에 압수되지 않은 온전한 초간본이다.

40) 『勉菴門人錄』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계명대 동산도서관, 성주의 사우당종택, 영남대 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문인록은 청양의 恭德祠 소장본으로 책명이 『勉菴門人錄』이라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문인록은 책명이 『勉菴先生門人錄』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판본으로 확인된다.

41) 문인록 간행 주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는 화서학회에서 간행한 여러 저작들이다. 화서학회의 홈페이지(cafe.daum.net/hwaseo-society)에는 張三鉉의 「화서 이선생의 강학활동」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후석 오준선은 簞珍誌에 보면 면암 최익현과 중유했다고 하였는데, 광한일이 작성한 면암문인록과 채미연원록, 신안군지에는 문인으로 기록되어있다.”는 내용이 있어 광한일이 「면암문인록」을 간행한 주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화서학과의 충효열록』(양평문화원, 2002)에는 “후석 오준선은 簞珍誌에 보면 면암 최익현과 중유했다고 하였는데, 광한소의 경암집, 채미연원록, 신안군지에는 문인으로 기록되어있다.”고 상이하게 서술되어 있는 등 내용의 편차가 있어 향후 면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勉菴門人錄』, 1a, “書札及祭文, 稱以門生者, 并皆入錄.”

운데 호, 관직, 가문 등 확인되는 정보를 부기하였다. 비록 이 문인록은 최익현 문하에서 배출된 모든 문인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익현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된 만큼 문인 내부의 결속에 대한 문인들의 의지가 작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자 이후 보다 완비된 문인록 간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암문인록』 간행 이후 최익현 문인들은 문인록 보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⁴³⁾ 하지만 앞서 간행한 『면암문인록』과 같이 별도의 문인록 간행은 일제 강점기에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호남 지역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일제에 의해 압수된 문집을 보완하려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조우식(趙愚植, 1869~1937), 정상길(鄭相吉), 오병남(吳秉南, 1878~1949), 박재식(朴在湜, 1881~?) 등은 일제에 의해 압수되어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배포된 『면암집』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부분의 복간을 추진하여 1931년에 그 결실을 보았고, 이때 속권 일부와 연보도 증보하였다. 일제의 감시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탈취된 『면암집』 일부를 복간한 것은 그만큼 최익현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문인들의 계승 의지가 강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최익현 문인들은 문인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며 최익현에 대한 추승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문인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최익현 사후에 건립된 사우 가운데 일제에 의해 훼손된 菴山祠(채산사, 경기 포천), 復陽祠(복양사, 황해 해주), 도동사(道東祠, 전북 고창), 태산사(泰山祠, 전북 태인), 오강사(梧岡祠, 전남 곡성), 月岳祠(월악사, 전남 함평), 하청사(河淸祠, 전북 태인) 가운데 채산사, 오강사, 도동사 등을 해방 이후 복설하는 한편,⁴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사우에서 정기적으로 추모제를 개최하

43) 청양의 慕德祠 소장본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면암문인록』에는 문인록 간행 이후 문인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 별도의 띠지에 신상 정보를 정리하여 추가로 부착하였다. 추가로 확인된 문인 5명을 포함하면 청양 모덕사 소장본 문인록을 통해 확인되는 최익현의 문인은 219명으로 집계된다. 이밖에 이 문인록에는 기존 수록 문인 가운데 신상 정보가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수기로 삽입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는 등 최익현에 대한 추승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접어들어 보다 완전한 문인록 간행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1967년에 상하 2권으로 『채미연원록』을 이문사(以文社, 대전)에서 간행하였다.

이 연원록은 최익현이 태어난 경기 포천 가채리(嘉蔭里)의 ‘채(蔭)’와 만년에 이주한 충남 정산 ‘미궤산(薇蕨山)’의 ‘미(薇)’를 따 ‘채미연원록(蔭薇淵源錄)’이라 명명한 것이다. 연원록 추진은 최익현의 직전 제자 중 후배 문인에 해당하는 조석일(曹錫日, 편집인)을 비롯하여 최병찬(崔炳燮, 발행인), 오일승(吳一升, 교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⁴⁵⁾ 상권에는 최익현의 세계(世系), 연보 초략(抄略), 행장을 수록하였으며,⁴⁶⁾ 하권에는 최익현의 직전 제자를 수록한 「문인록(門人錄)」, 직전 제자의 문하에서 배출된 재전 제자 및 삼전 사전 제자의 명부를 등재한 「사속록(私淑錄)」, 그리고 비록 최익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지는 않았지만 평소 실심으로 최익현을 앙모하여 스스로 입참(入參)하기를 원하였던 2백여 명의 명단이 담긴 「존모록(尊慕錄)」을 편차하였다. 「문인록」과 「사속록」의 문인 명단은 연령순으로 등재하였으며,⁴⁷⁾ 「존모록」의 문인은 단자(單

44) 『蔭薇淵源錄』 卷上, 12b, 「祠宇錄」.

45) 『蔭薇淵源錄』은 최익현 학맥을 계승한 전국의 문인들이 결집하여 간행 작업이 진행되었다. 都有司는 李英鎬(서울)가 맡았으며, 副有司는 崔炳燮(전주)·申申純(청양), 掌財는 朴東鎭(서천), 총무는 최병섭, 편집은 尹稷漢(공주)·高濟彦(고창)·趙東麟(곡성), 교정은 曹錫日(고창)·吳一昇(장수), 司書는 崔秉武(공주), 監印은 崔炳翬(공주)이 각각 그 소임을 맡아 간행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문인들에게 단자를 발송하고 수집하는 것은 收單有司를 맡은 吳熙奭(청주)을 비롯한 40여 명의 문인이 담당하였다. 『蔭薇淵源錄』 下, 33a~b, 「任員錄」 참조.

46) 『蔭薇淵源錄』에 수록된 최익현의 「행장」은 1927년에 李商永(1850~?)이 작성한 것이다. 이상영은 1897년 성균관 교수가 되었고, 을사늑약의 체결에 항의하여 을사오적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인물이다. 1년 만에 사임했지만,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47) 연원록의 편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늦게 도착한 단자의 문인들을 부득이하게 문인 명단의 뒤에 추가로 수록하여 선후 차례가 완전히 연령순으로 편집되지는 않았다. 『蔭薇淵源錄』 1b, 「凡例」 참조.

子)가 도착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문인록」, 「사숙록」 등에 등재된 문인에 대해서는 다른 학파의 문인록과 마찬가지로 이름 이외에 자, 호, 생년, 본관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되었으며, 가문 정보 등 추가 내용이 확인된 문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다. 당시 간행된 다른 학파의 문인록과는 달리, 이 연원록에는 등재 문인들의 자손 이름과 거주지가 실려 있다.⁴⁸⁾ 그리고 이 연원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익현과 함께 의병 활동을 전개한 문인이나 이후 항일 행적이 확인되는 문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간단하지만 빠짐없이 적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문인 내부에서는 이 시기까지도 최익현의 의병 활동과 항일 의지를 공유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였던 것이다.

이 연원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전 제자를 비롯하여 전국에 분포한 재전 제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통문을 돌리고 단자를 수습하여 체계적으로 문인 명단을 정리한 만큼 최익현 문인 집단을 망라한 완비된 문인록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문집에 미처 수록하지 못하였던 최익현의 행장을 비롯하여 최익현을 주향으로 하거나 배향하는 사우를 모두 정리 수록하는 등 최익현과 관련한 일체 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최익현의 문인들에 의해 편집된 가장 정돈된 자료인 동시에 학문 계승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연원록 간행 이후 최익현의 문인 내부에서는 더 이상 문인록 간행과

48) 1960년대에 본격화하는 기호학계 여러 학파들의 문인록 간행은 통문의 배포와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통문을 통해 확인한 정보 중 하나는 해당 문인의 자손 이름과 거주지였다. 최익현 문인들이 발송하고 수집한 통문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간재학과 문인들이 『華鳴淵源錄』 간행을 위해 송부된 통문에는 해당 문인의 성명, 자, 생년, 가문 연원, 스승 이외에 자손 중 한 명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채미연원록』 간행 당시에도 동일하게 자손의 명단 및 주소를 요청했고, 이 내용을 연원록에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도연원록』 간행 당시 통문 실물은 이선아, 「『高山誌』(1964) 편찬과 고산지역 艮齋門人の 역할」,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316쪽 참조.

관련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최익현을 포함한 화서학과 문인들에 대한 문인록 간행에 대한 의론이 제기되었고, 이항로의 사전 제자인 장삼현(張三鉉)이 중심이 되어 1983년에 「화서이선생문인연원록작성통문(華西李先生門人淵源錄作成通文)」이 전국 각지에 배포되었다.⁴⁹⁾ 그리고 십 수 년의 오랜 노력 끝에 1999년에 양평문화원 명의로 『벽계연원록』이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벽계연원록』의 「화서문인급기문하생록(華西門人及其門下生錄)」에 ‘면암최익현문하생(勉菴崔益鉉門下生)’이란 제하에 가나다순으로 8백51명의 최익현 문인이 수록되었고,⁵⁰⁾ 이어 7천여 명의 이항로 학맥의 재전 및 삼전 제자 명단 가운데 최익현의 문인들은 그의 직전 제자를 비롯하여 재전 및 삼전 제자가 수록되었다.⁵¹⁾ 『벽계연원록』 간행 이후 2001년에 화서학회가 창립되고, 이후 학회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이항로 학맥의 문인들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면서 『벽계연원록』에 수록된 최익현의 문인들 이외에 이후 확인한 문인들을 추가하여 등재되었다.⁵²⁾

이처럼 최익현의 학통을 계승한 문인들에 대한 정리 작업은 최익현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0년대 초반부터 20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직전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두 차례의 문인록 간행 작업은 최익현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최익현 문인들의 학파적 결집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49) 1983년에 이항로의 구택 중수 과정에서 뜯어낸 벽지에서 ‘화서이선생문하생 명단’ 초고 일부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항로의 삼전 제자 張基德이 그의 아들 張三鉉에게 문인록 발간을 권유하여 본격적인 문인록 발간 작업이 추진되었다.

50) 『藥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999, 16~20쪽.

51) 『藥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999, 25~387쪽.

52) 화서학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최익현의 직전 제자는 904명으로 확인되며, 고석진을 비롯한 직전 제자의 문하에서 배출된 재전 제자들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벽계연원록』은 여러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수록된 문인들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수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명중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라 할 수 있다.⁵³⁾

2. 직전 제자군의 형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익현이 문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는 1873년부터 1875년까지의 제주 유배기였다. 이기온(李基溫, 1834~1886), 김희정(金羲正, 1844~1925) 등 제주 지역의 유림들을 비롯하여 호서 및 호남 지역에서 도해한 박해량, 김효환(金孝煥), 이필세(李弼世, 1837~?) 등이 초기 제자군을 형성하였다. 이후 포천과 정산을 찾아온 전국 각지의 문인들에 의해 직전 제자군은 확대되었으며, 의병 활동 중에도 여러 문인들을 받아들여 최익현의 직전 제자군은 보다 폭넓게 확대되었다.

『채미연원록』을 통해 확인되는 직전 제자는 660명이다. 연원록 간행을 주도한 문인들이 통문을 돌리고 단자를 수합하여 등재한 문인은 369명이며, 단자가 수습되지 않았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문인으로 확인하여 「문인록」에 수록한 문인은 291명이다. 「최익현 사후에 제문과 만장을 수습하여 편집한 『면암선생제만록(勉菴先生祭輓錄)』에서 확인한 인사 109명의 이름이 문인록」 말미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최익현의 문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전 제자는 660명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생년	1827~ 1840	1841~ 1850	1851~ 1860	1861~ 1870	1871~ 1880	1881~ 1890	1891~ 1900	미상	합계
문인수	10명 (1.51%)	41명 (6.21%)	102명 (15.46%)	126명 (19.09%)	110명 (16.67%)	72명 (10.91%)	11명 (1.67%)	188명 (28.48%)	660명 (100%)

<표 1> 최익현 직전 제자들의 생년 분포(『채미연원록』의 「문인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0명의 직전 제자들은 1827년생부터

53) 최익현의 학맥을 이어나가려는 문인들의 의지는 『苙薇淵源錄』 이외에 직전 제자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제전들의 문인록 발간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서 활동한 高石鎭의 문인들은 1962년에 『秀南高先生門人錄』을 발간하였다.

1890년생까지 60여 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⁵⁴⁾ 최익현의 강학 활동이 1870년대 초반부터 1906년 대마도에서 순국할 때까지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직전 제자들의 연령 분포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직전 제자 가운데 중심을 이룬 문인들은 1851년생부터 1880년생까지의 문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령대의 문인은 338명으로 전체 문인의 51.21%에 해당한다. 대체적으로 학문 활동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20대부터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활동 시기는 1870년대 이후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최익현이 강학을 본격화하는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익현이 제주 유배 이후 호남을 유력한 후 자신의 근거지인 포천에 은거하며 강학을 본격화하는 시기부터 다수의 문인들이 그의 문하에 입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시군	문인수	지역	시군	문인수		
서울 (4명, 0.61%)	서울	4	경남 (43명, 6.52%)	진주	진주	2	
					진양	2	
함북 (1명, 0.15%)	길주	1		창녕	창녕		2
					함남 (3명, 0.45%)	영흥	함양
황해 (31명, 4.70%)	단천	1					거제
				연안	11	고창	고창
	해주	7	무장				2
			평산	7	홍덕		1
	강원 (3명, 0.45%)	평산			3	진안	
			백천	2		장수	
		봉산			1	순창	
춘천	1		익산			8	
		영월	1	완주		4	
철원	김화			1	김제	금구	4
		전북 (127명, 19.24%)					

54) 1890년 이후에 출생한 직전 제자들은 최익현에게서 직접 수학한 제자가 아니라 최익현의 孫子이거나 孫孺들로 확인된다. 가학의 계승 측면에서 직전 제자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12명, 1.82%)	포천		7	광주 (11명, 1.67%)	남원		4
	연천		2		정읍	정읍	3
	파주		1			태인	3
	안양		1			고부	2
	양주		1		군산	옥구	4
충북 (4명, 0.61%)	청주	청주	3			군산	2
		청원	1			임피	1
대전 (2명, 0.30%)	대전		2		전주		3
충남 (42명, 6.36%)	청양		11		임실		2
	공주		10		광주		6
	보령		5		광산		5
	부여		5	장흥		28	
	홍주		4	곡성		25	
	서천		3	무안		19	
	예산		2	화순	능주	17	
	아산		1		화순	16	
연기		1	동북		4		
대구 (2명, 0.30%)	달성		1	보성		14	
	대구		1	함평		11	
경북 (4명, 0.61%)	울진		2	영암		10	
	예천		1	나주		5	
부산 (1명, 0.15%)	경주		1	구례		4	
	동래		1	순천		3	
경남 (43명, 6.52%)	하동		11	장성		2	
	합천		8	고흥	홍양	1	
	의령		5	담양	창평	1	
	거창		5	여수		1	
	산청	단성	3	제주 (2명, 0.30%)		제주	2
산청		3	미상 (31.36%)			207	
합계			660명 (100%)				

<표 2> 최익현 직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 (『채미연원록』의 「문인록」)

직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표 2>에서 확인되었듯이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127명, 19.24%), 광주(11명, 1.67%), 전남(161명, 24.39%) 등 호남을 지역적 배경

으로 하는 직전 제자가 299명(45.30%)에 이른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하게 된 것은 최익현이 제주 유배에서 해배된 후 광주 전남 지역은 물론, 전북 지역을 찾아 이 지역의 문인들과 학문적 교류를 진행하였고, 흑산도 유배에서 해배된 후(1879)에도 전남 지역을 다시 찾는 등 호남에 대해 학문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⁵⁵⁾ 노년에 이르러서도 최익현은 전북 임피를 비롯하여 호남의 여러 지역에서 강회를 개최하였으며,⁵⁶⁾ 더구나 호남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기정진 및 노사학과 문인들과 학문 교류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의병 활동을 함께 한 것도 호남 지역에서 많은 문인을 배출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⁵⁷⁾

진주와 하동, 그리고 합천 등 경남(43명)과 대구(2명) 및 경북(4명) 등 영남 지역에서 50명(7.57%)에 이르는 문인을 배출한 것은 그의 유력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최익현은 1900년 정산으로 이거한 후 곧바로 관향인 경주로 유력을 떠나 3개월 간 대구 및 경북 지역을 유력하였고, 특히 대구에서는 홍직필의 문인인 서찬규(徐贊圭, 1825~1905)를 찾아 함께 향음례를 행하는 등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⁵⁸⁾ 또한 최익현은 70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합천 출신 문인인 류기석(柳淇錫, 1867~?)을 비롯하여 거창 출신의 신종식(愼宗軾, 1878~?) 등을 대동하고 1902년 4월에 지리산으로의 유력을 단행하여 안의, 함양, 단성, 진주, 하동을 거쳐 지리산을 등정한 후, 다시 합천을 거쳐 가야산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정진의 문인인 정재규, 최숙민 등과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하동에서 강론을 펼치는 등 이 지역에 대해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 강화하였다.⁵⁹⁾ 이렇듯 70세를 전후한

55) 각주 15) 참조.

56) 『勉菴集』附錄 卷2, 14a, 「年譜」, '47歲條」,

57) 최익현의 장자인 崔永祚는 노사학과의 高弟인 영암 출신 愼在哲(1803~1872)의 딸과 결혼하여 호남의 유력 가문과 연결되었고, 이에 따라 신재철의 아들인 愼宗鳳과 손자인 愼容晟이 모두 최익현의 문인이 되었다.

58) 『勉菴集』附錄 卷3, 7a~b, 「年譜」, 68歲條.

시기에 단행한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력은 이 지역의 문인을 흡수하는 한 통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을 포함하여 충청 지역(48명, 7.27%)에서 다수의 문인을 배출한 것은 그의 이거지인 정산을 중심으로 강학 활동이 전개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 지역 가운데 공주(10명), 보령(5명), 부여(5명)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문인이 배출된 것도 최익현의 유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⁶⁰⁾ 이밖에 함경도(4명), 황해도(31명) 등지에서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한 것은 이 지역의 문인이 그의 명성을 좇아 그의 유배지 및 강학지를 찾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⁶¹⁾ 대표적으로 함경도 단천 출신인 최영호(崔永皓, 1839~?)는 1천여 리를 걸어 최익현의 포천 집을 찾았으나 그가 흑산도에서 유배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남으로 1천 여리를 걷고 바다를 건너 흑산도로 가 최익현의 문인이 되었다.⁶²⁾

『채미연원록』의 직전 제자에게서 주목되는 점은 당시 다른 학과의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들이 다수 분포한다는 점이다. 『노사선생연원록(蘆沙先生淵源錄)』에 등재된 기정진의 직전 제자 가운데 박해량(朴海良)을 비롯하여 오준선(吳駿善, 1851~1931), 권운환(權雲煥, 1853~?) 등이 최익현의 직전 제자로 등재된 것을 비롯하여 기우만의 문인인 최기성(崔基性, 1863~1931), 조인석(趙寅錫, 1863~?), 박승재(朴丞載, 1863~1943), 박임상(朴琳相, 1864~1944), 정재규의 문인인 이택환(李宅煥, 1854~1924), 이양호(李養浩, 1861~), 유원중(柳遠重, 1861~?), 남창희(南昌熙, 1870~?), 정의립의 문인인 정유흠(鄭瑜欽, 1872~?), 오재동(吳在東, 1881~?), 윤상의

59) 『勉菴集』附錄 卷3, 10a~11b, 「年譜」, 70歲條.

60) 최익현은 1901년 4월에 임피 낙영당 강회에 참석하면서 보령을 찾아尹錫漢과 金福漢을 만났으며, 그해 9월에는 공주 지역을 유력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학문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다. 『勉菴集』附錄 卷3, 8a~9a, 69歲條.

61) 최익현의 교유 인사 중 황해도 출신이 적지 않았고, 이들 교유 인사를 통하여 이 지역 출신의 문인들이 최익현의 문하에 입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勉菴集』卷19, 16a, 「延安宋氏族譜」, “以其有海西知舊, 而知有延安氏, 以其家譜之將入梓也, 而得相弼學周二君於今日.”

62) 각주 14) 참조.

(尹相義, 1872~?), 박준기(朴準基, 1864~?), 조성가(趙性家) 문인인 권봉현(權鳳鉉, 1872~?) 등 71명이 『채미연원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듯 다수의 노사학과 문인들이 최익현의 직전 제자로 편입된 것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최익현이 제주 유배 이후 지속적으로 기정진과 그의 문인들과 학문과 현실 대응 측면에서 유대 관계를 조성하였고, 특히 시대적 변란에 대응한 실천 지향적 면모에서 동일한 보조를 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노사학과 이외에 연재학과 다수의 문인들도 최익현의 직전 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채미연원록』에 등재된 직전 제자 가운데 윤자현(尹滋鉉, 1844~1909), 안택환(安澤煥, 1844~1917), 조장섭(趙章燮, 1857~?), 이도복(李道復, 1862~1938) 등 63명이 연재학과의 『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에도 등재되어 있다. 다수의 연재학과 문인들이 최익현의 문하에 입문한 것은 송병선과 공동으로 강회를 개최하였고, 두 학자의 유력지가 겹칠 뿐만 아니라 송병선 사후에 연재학과 문인들이 그의 뜻을 계승하여 항일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익현의 문하에 입문한 것이 배경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밖에 많지 않지만 『화도연원록(華鳴淵源錄)』의 「문인록」에 등재된 임병지(林炳志, 1874~1944), 최봉소(崔鳳韶, 1874~?), 송성호(宋性浩, 1877~?), 김정만(金正萬, 1880~?) 등 17명과 「급문록」의 유상대(柳相大, 1864~?) 등 총 18명의 간재학과 문인도 최익현의 직전 제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렇듯 두 학과의 문인록에 여러 문인이 동시에 등재된 것은 최익현과 전우와의 교유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⁶³⁾

3. 문인들의 학문 활동과 학맥의 계승

직전 제자들은 최익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는 한편, 최익현과 함

63) 『良齋集』에는 田愚가 崔益鉉에게 보낸 편지 2편, 『勉菴集』에는 전우에게 답한 崔益鉉의 편지 1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田愚는 崔益鉉이 순국하자 「祭勉菴崔公文」(丁未)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하였다.

계 의병 활동의 전면에서 활약하는 등 당대 기호학계 여러 학파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면모는 최익현 사후에도 지속되었다.⁶⁴⁾

창의 과정에서 최익현의 문하에 입문한 임병찬은 1912년에 홍주 9의사의 일원이자 동문인 이척(李弼, 1873~1936)을 통해 고종의 밀지를 받고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의 조직에 앞장서는 등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의 대열에서 활약하였다. 고석진도 임병찬과 함께 독립의군부에 참여하여 참모총장을 맡아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익현 직전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의군부는 일제에 발각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고광순(高光洵, 1848~1907)은 1907년 1월 담양의 전주 이씨 제각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활약하였다가 일제의 의병 토벌 작전으로 인해 전사하였으며, 노응규(盧應奎, 1861~1907)는 동문인 엄해운(嚴海潤, 1863~1909), 서은구(徐殷九, 1876~?), 노공일(盧公一, 1882~1950) 등과 함께 황간에서 거의하였다가 피체되어 1907년 5월에 경성의 옥사에서 생을 마쳤다. 이재윤(李載允, 1849~1911)은 최익현의 명에 따라 원세개(袁世凱)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후 경술국치 이후 목을 매고 자살하였으며, 최전구(崔銓九, 1850~1938)는 광복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유배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최익현의 직전 제자들은 최익현의 항일 의지를 계승하여 독립운동의 전면에서 활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인이 순국하거나 순절하였다.⁶⁵⁾

64) 『채미연원록』을 간행한 주체들은 직전 제자들의 항일 행적을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하였다. 특히 金箕述, 梁在海 등 순창 12의사와 순창의 거에 참여한 모든 직전 제자, 柳濬根, 安恒植 등 홍주 9의사 등 의병 활동의 중심인물 등을 직전제자에 포함하여 등재하고 그들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그만큼 최익현의 문인들은 의병 활동과 항일운동을 문인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

65)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을 받은 최익현의 직전 제자는 50

하지만 대다수의 직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항일 의지를 간직한 채 강학 활동에 전념하였다. 고룡진(高龍鎭, 1850~1922), 장진욱(張鎭旭, 1866~1934) 등이 3·1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였다가 고초를 겪고, 순창 12의사인 고석진을 비롯한 고창 지역의 직전 제자들이 파리장서에 서명하는 등 항일 의지를 표면화하였지만,⁶⁶⁾ 대체적으로 여러 직전 제자들은 자신의 근거지에 은거한 채 학문을 익히고 강학 활동을 전개하며 최익현의 학문과 사상을 문인들에게 전수하였다.

구례 출신인 임현주(林顯周, 1858~1934)는 1915년 후학 양성을 위해 오봉정사(五鳳精舍)를 건립하면서 정사 위에 주자와 최익현을 배향하는 봉산사(鳳山祠)를 마련하여 후학들에게 유학의 도뿐만 아니라 강한 항일 의지를 심어주었으며, 보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백경인(白景寅, 1874~1952)도 자신의 거처 인근에 장춘재(藏春齋)를 마련하고 강학에 전념하였다. 곡성 출신의 조영선(趙泳善, 1879~1932)은 최익현을 배향한 오강사 건립을 주도하는 한편, 문인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같은 지역 출신인 정대현(丁大睨, 1884~?)은 자신의 강학 공간인 채산재(採山齋)를 마련하여 최익현의 항일 의지를 문인들에게 강론하였다.⁶⁷⁾ 광산 출신의 유인석(柳寅奭, 1859~1931)은 산서재(山棲齋)를 지어 강학을 전개하면서 재실 앞의 돌에 ‘비례물동(非禮勿動)’을 새기고 선비의 길을 실천하며 지절의 모습을 문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여 명에 이르고, 순국하거나 순절한 제자도 20여 명에 달한다. 張三鉉, 『화서학과의 충의효열록』, 양평문화원, 2002, 103~114쪽 참조.

66) 파리장서에 서명한 최익현의 제자는 고석진, 白觀亨(1861~1928), 高舜鎭(1863~1938), 高禮鎭(1875~1952), 高濟萬(1860~?), 金陽洙(1849~1930) 등이다. 김봉곤, 「호남지역의 파리장서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 2015, 17쪽.

67) 대부분의 최익현 문인들은 별도의 강학 공간을 마련하여 강학을 본격화하였다. 『채미연원록』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제주 출신 문인인 李基溫과 아들 李膺鎬(1871~1950)은 文淵書塾을 마련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특히 이膺호는 제주 출신 지사들로 구성된 集義契의 대표를 맡아 제주 지역의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張三鉉, 앞의 책, 83쪽.

연번	직전 제자	문인수 (명)	연번	직전 제자	문인수 (명)
1	崔基龍(1843~1913)	13	44	張鎮旭(1866~1934)	20
2	文章煥(1847~?)	4	45	金純默(1866~?)	1
3	崔銓九(1850~1932)	8	46	文泰郁(1867~1944)	6
4	林柄瓚(1851~1916)	2	47	姜漢老(1867~?)	13
5	吳駿善(1851~1937)	1	48	曹錫一(1868~1916)	28
6	文達煥(1851~1938)	49	49	宋鍾滢(1868~?)	14
7	閔尙鎬(1852~1934)	11	50	金相翊(1868~?)	17
8	尹兢周(1853~1912)	40	51	愼宗麟(1868~?)	17
9	鄭經源(1853~1946)	84	52	趙愚植(1869~1937)	28
10	權雲煥(1853~1918)	8	53	梁基萬(1869~?)	35
11	崔光烈(1853~?)	2	54	南昌熙(1870~1945)	5
12	柳東宣(1853~?)	2	55	鄭源泰(1870~?)	2
13	李起晦(1854~?)	6	56	曹惠承(1873~1960)	3
14	梁在海(1854~1924)	13	57	崔國煥(1873~?)	3
15	高石鎭(1856~1924)	130	58	林柄志(1874~1944)	4
16	盧鍾龍(1856~1940)	19	59	白景寅(1874~1952)	1
17	趙章燮(1857~?)	8	60	高禮鎭(1875~1952)	6
18	宋鍾原(1857~?)	6	61	河祐植(1875~1943)	23
19	朴珍煥(1857~?)	2	62	文圭簡(1875~?)	12
20	朴奎鎭(1858~1934)	85	63	沈相福(1876~1951)	20
21	崔柄善(1858~?)	12	64	金九鉉(1876~1956)	38
22	林顯周(1858~1934)	9	65	宋性浩(1877~?)	1
23	文圭性(1858~?)	25	66	文昌善(1878~?)	51
24	柳寅奭(1859~1931)	24	67	趙泳善(1879~1932)	9
25	崔永祚(1859~1927)	23	68	河在壹(1880~?)	2
26	李碩模(1859~?)	3	69	金正萬(1880~1955)	9
27	鄭瑀欽(1860~?)	31	70	李錫龜(1880~?)	2
28	高濟萬(1860~?)	1	71	全東權(1880~?)	7
29	吳在翁(1861~?)	24	72	朴在湜(1881~?)	1
30	盧應奎(1861~1907)	4	73	金基庠(1881~?)	6

31	李洙夏(1861~1931)	64	74	郭漢紹(1882~1927)	15
32	白觀亨(1861~1928)	4	75	文思澈(1882~?)	14
33	李敎憲(1862~1935)	29	76	崔濟學(1882~1959)	19
34	鄭濟萬(1862~1942)	15	77	崔相烈(1883~?)	2
35	李道復(1862~1938)	63	78	李圭泰(1883~?)	12
36	崔基性(1863~1930)	45	79	朴顏相(1883~?)	11
37	趙寅錫(1863~1932)	13	80	丁大睨(1884~?)	25
38	朴丞載(1863~1943)	23	81	梁昌權(1884~?)	22
39	朴琳相(1864~1944)	84	82	柳海鎔(1884~?)	2
40	宋鍾弼(1864~?)	4	83	曹錫日(1886~1969)	12
41	金寬濟(1864~?)	2	84	林基沃(1889~?)	3
42	余敬燦(1864~1923)	2	85	白弘均(?~?)	1
43	裴禎基(1864~?)	47	86	崔元植(1892~?)	8
합계			1,574명		

<표 3> 최익현 직전 제자들의 문인 배출 현황 (『채미연원록』의 「사속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직전 제자들은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86명의 문하에서 재전 제자 1,574명이 배출되었다. 660명의 직전 제자 가운데 13%를 상회하는 86명의 직전 제자에게서 문인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익현의 학맥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최익현 사후에 강학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년	1856~1870	1871~1880	1881~1890	1891~1900	1901~1910	1911~1920	1921~1930	1931~1940	1941~1946	미상	합계
문인수	27명 (1.72%)	116명 (7.37%)	263명 (16.71%)	392명 (24.91%)	391명 (24.84%)	210명 (13.34%)	59명 (3.75%)	49명 (3.11%)	15명 (0.95%)	52명 (3.30%)	1,574명 (100%)

<표 4> 최익현 재전 제자들의 생년 분포 (『채미연원록』 「사속록」)

<표 4>에서 확인되듯이, 1881년생부터 1920년생까지의 재전 제자들이 전체 문인의 80%에 육박하는 1,256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전 제자의 문하에 입문한 시기를 대략 20세 전후라고 할 때, 직전 제자들이 강학을

본격화하는 시기는 1900년대 초반, 즉 최익현의 순국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강학 활동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하여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강학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직전 제자들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학문 활동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제자들이 문집 내지 유고를 남겼다.⁶⁸⁾ 직전 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문인의 문집 내지 유고가 사후에 간행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자손이나 문인들이 유고 간행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문인 배출을 학맥 계승이 이들의 유고나 문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겠다.

지역	시군	문인수	지역	시군	문인수	
서울 (22명, 1.40%)	서울	22	전북 (442명, 28.08%)	부안	5	
인천 (3명, 0.19%)	인천	3		순창	1	
경기 (11명, 0.70%)	포천	1		익산	익산	25
	연천	2			이리	1
	파주	1		완주	17	
	양주	7		김제	3	
충북 (2명, 0.13%)	충주	2		남원	3	
대전 (1명, 0.06%)	대전	1		정읍	19	
충남 (98명, 6.23%)	청양	18		군산	옥구	18
	공주	28			군산	9
	보령	8		전주	5	
	부여	5		임실	2	
	당진	1		광주 (64명, 4.07%)	광주	21
	서천	16			광산	43
	아산	1	전남		장흥	96

68) 선행 조사에 따르면, 최익현의 제자 가운데 문집 내지 유고를 남긴 문인은 50여 명에 이른다. 장삼현, 『화서학파의 충의효열록』, 양평문화원, 2002, 644~649쪽 참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진행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기	10	(794명, 50.44%)	곡성	89	
	논산	11		무안	163	
경북 (1명, 0.06%)	성주	1		화순	능주	11
경남 (127명, 8.07%)	하동	28			화순	138
	합천	9			동북	1
	의령	5		보성	3	
	산청	단성		5	함평	83
		산청		55	영암	166
	진주	진양		15	영광	3
		진주		2	나주	23
	창녕	1		구례	12	
	사천	1		순천	1	
	함양	6		장성	2	
전북 (442명, 28.08%)	고창	고창		195	담양	1
		무장		4	고흥	2
	진안	101		미상 (9명, 0.57%)		
	장수	34				
합계				1,574명 (100%)		

<표 5> 최익현 재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 (『채미연원록』의 「사속록」)

직전 제자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재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직전 제자와 마찬가지로 전북(442명), 광주(64명), 전남(794명)을 포함한 호남 지역 문인이 1,300명으로 전체 재전 제자의 84.03%에 이른다. 특히 최익현의 수제자로 평가받으며 고창에서 강학 활동을 전개한 고석진(130명), 능주의 박규진(85명), 함평의 정경원(84명), 무안의 박임상(84명)⁶⁹⁾ 등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한 문인의 문하에서 다수의 문인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성 출신인 이도복의 경우에는 장년기까지는 산청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영남 지역에 다수의 문인을 배출하였지만, 말년에 이르러 진안으로 이거하여 강학 활동을 펼쳐 진안 지역에서도 수다한 문인을 배출하였다.⁷⁰⁾ 이처럼 호남을 배경으로 직전 제자들의 강

69) 朴琳相은 기우만의 문인이기도 하다. 기우만과 최익현 양문을 넘나든 박임상의 문인은 『蘆沙先生淵源錄』에 『菑薇淵源錄』의 등재 문인보다 많은 118명이 등재되어 있다.

학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호남 전 지역에 걸쳐 많은 문인이 배출되어 호남 지역이 최익현 학맥의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경북 지역의 재전 제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경남 지역의 재전 제자는 127명(8.07%)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거론한 이도복을 비롯하여 하우식(河祐植, 1875~1943), 심상복(沈相福, 1876~1951) 등이 진주와 산청 등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강학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충남 지역에서 100명 가까운 재전 제자들이 배출된 것도 청양과 공주를 중심으로 강학 활동을 전개한 최익현의 장자 최영조를 비롯하여 윤궁주(尹兢周, 1853~1912), 이교헌(李教憲, 1862~1935), 곽한소 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재전 제자들은 직전 제자와 마찬가지로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210명의 삼전 제자를 배출하며 유학의 도를 수호하고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다. 재전 제자 가운데 1명 이상의 문인을 배출한 재전 제자는 최기성 문하의 전병휘(全炳徽, 1887~?, 11명), 김상기(金相淇, 1897~?, 17명), 전석규(全錫奎, 1903~?, 7명)를 비롯하여 최영조 문하의 송건호(宋健浩, 1888~?, 2명), 송서호(宋瑞浩, 1891~?, 6명), 안도순(安道淳, 1895~?, 16명), 문규성 문하의 신용성(愼用晟, 1890~?, 14명), 최전구 문하의 봉창모(奉昌模, 1887~?, 7명), 조덕승 문하의 정홍채(鄭泓采, 1901~?, 12명), 백경인 문하의 이남재(李南載, 1888~?, 27명), 문달환 문하의 박봉주(朴奉柱, 1885~?, 36명), 조석일(曹錫一) 문하의 최병기(崔炳麒, 1895~?, 2명), 박임상 문하의 최승현(崔丞鉉, 1878~?, 10명), 박기청(朴淇靑, 1882~?, 26명), 서상태(徐相台, 1891~?, 9명), 조성원(趙晟元, 1888~?, 8명) 등이다.

재전 제자 문하에서 배출된 삼전 제자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익산에서 활동한 송서호의 문하에서 배출된 논산 지역의 삼전 제자 2명을 제외하면 삼전 제자 모두가 호남 지역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달환 문인인 박봉주

70) 李道復은 연재학과 문인이기도 하다. 송병선 형제와 최익현의 문하를 넘나든 이도복의 문인은 『溪山淵源錄』에 78명이 등재되어 있다.

의 제자인 박형관(朴炯寬, 1905~?)의 문하에서 배출된 37명의 사전 제자가 모두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⁷¹⁾ 삼전 제자부터 이후의 학맥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시군	문인수	지역	시군	문인수		
충남 (2명, 0.95%)	논산	2	전남 (180명, 85.71%)	영암	47		
	전북 (22명, 10.48%)	익산		6	보성	4	
완주		1		장성	4		
고창		고창		14	화순	능주	1
		무장		1	영광	1	
광주 (6명, 2.86%)	광주	6		목포	1		
전남 (180명, 85.71%)	장흥	70		나주	1		
	무안	51		합계 (100%)		210	

<표 6> 최익현 삼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 (『채미연원록』의 「사속록」)

생년	1888~ 1890	1891~ 1900	1901~ 1910	1911~ 1920	1921~ 1930	1931~ 1940	1941~ 1949	합계
문인수	1명 (0.48%)	19명 (9.05%)	54명 (25.71%)	52명 (24.76%)	33명 (15.71%)	41명 (19.53%)	10명 (4.76%)	210명 (100%)

<표 7> 최익현 삼전 제자들의 생년 분포 (『채미연원록』 「사속록」)

<표 7>에서 확인되듯이, 삼전 제자들의 생년은 1888년부터 1949년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그 가운데 1901년생부터 1940년생까지의 문인이 180명으로 85.71%에 이른다. 앞서 거론한 사전 제자들의 생년 분포에서도 1931년생부터 1940년생이 25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점을 고려할 때,⁷²⁾ 삼전 및 사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재전 및 삼전

71) 崔益鉉-文達煥-朴奉柱로 이어진 학맥을 계승한 朴炯寬의 문하에서 배출된 사전 제자는 장흥(33명), 보성(3명), 나주(1명) 등 37명이다.

72) 사전 제자의 생년 분포는 1905년생(1명), 1926년생(1명)을 비롯하여 1931~

제자의 문하에 입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삼전 및 사전 제자들은 근대식 학제가 일반화되고, 특히 유학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20세기 전후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통 유학의 도를 익히고 유교 문화를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삼전 제자들은 항일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기도 하여 고석진의 문인 고제남(高濟南, 1887~1909)은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의해 총살을 당하였고, 최전구의 문인 봉운경(奉潤卿, 1864~?), 최익렬(崔翼烈, 1869~1931) 등은 항일투사로 활약하였다.

지역	직전 제자	재전 제자	삼전 제자	사전 제자	합계
서울	4	22			26명 (1.05%)
인천		3			3명 (0.12%)
함북	1				1명 (0.04%)
함남	3				3명 (0.12%)
황해	31				31명 (1.25%)
강원	3				3명 (0.12%)
경기	12	11			23명 (0.93%)
대전	2	1			3명 (0.12%)
충북	4	2			6명 (0.24%)
충남	42	98	2		142명 (5.72%)
전북	127	442	22		591명 (23.82%)
광주	11	64	6		81명 (3.27%)
전남	161	794	180	37	1,172명 (48.24%)
제주	2				2명 (0.08%)
대구	2				2명 (0.08%)
경북	4	1			5명 (0.20%)
부산	1				1명 (0.04%)

1940년생(25명), 1941~1950년생(8명), 1951~1952년생(2명)이다.

경남	43	127			170명 (6.85%)
미상	207	9			216명 (8.71%)
합계	660	1,574	210	37	2,481명 (100%)

<표 8> 최익현 전체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 (『菑菴淵源錄』)

면암학파의 학맥 계승에서 주목되는 것은 <표 8>에서 확인되듯이 전북 및 광주 전남 지역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호남에서 학문적 영향력이 강했던 노사학과 및 연재학과, 그리고 간재학과와의 직간접적인 학문 교류 관계가 최익현 생존 시부터 조성되었고, 특히 항일 의지를 공유하며 노사학과 및 연재학과의 문인들을 일부 흡수한 것이 이러한 학맥 계승의 양상으로 이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최익현의 창 의 장소가 호남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도 이러한 학맥 계승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영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학적 기풍이 비교적 강하게 자리했던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익현의 지속적인 강학 활동,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재전 및 삼전 제자들의 강학 활동을 통해 최익현의 문인 집단은 20세기를 관통하며 도학 계열의 한국 근현대 유학의 결국을 장식하는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비록 화서학파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최익현의 학맥을 계승한 문인 집단은 일찍부터 별도의 문인록을 간행하여 독자적인 문인 집단으로서의 생각이 강하였고, 남다른 문인들 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최익현에 대한 존숭의 뜻이 남달랐다는 점에서 화서학파에서 연원하지만 별도로 '면암학파(勉菴學派)'라고 칭할 수 있는 문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최익현의 직전 제자 660명을 비롯하여 재전 제자 1,574명, 삼전 제자

210명, 그리고 사전 제자 37명을 포함한 총 2,481명에 이르는 면암학과 문인들은 일제강점기에서 지사적인 면모를 보이며 유학의 도를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해방 이후에 『채미연원록』 간행을 통해 학문 연원을 확인하며 학과적 결집을 진행하였다. 특히 연원록에 등재한 문인들의 항일 행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학과의 정체성이 최익현으로부터 비롯된 구국의 의지와 항일의 행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제까지 근현대 유학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최익현을 비롯하여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문인들의 강학 활동 및 문인 집단은 빗겨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의병 활동을 전개한 일부 문인이나 항일 운동을 전개한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 면암학과 문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학 연구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암학과의 대체적인 면모마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시대의 노사학과 및 연재학과 등과 마찬가지로 면암학과는 다수의 문인들이 여러 지역을 근거로 특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문인 내부의 결속과 강학 활동 등을 통해 학과적 결집력을 이루어 20세기 중후반까지 학과적 면모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지역별 면암학과 문인들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개별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전개된다면 보다 명증하게 면암학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20세기를 관통하며 면암학과 문인들이 보여준 시대 인식과 활동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후속된다면, 면암학과뿐만 아니라 근현대 한국유학의 내용을 해명하고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면암학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후속되길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1월 14일에 투고되어, 2020년 1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20년 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2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참고문헌>

- 崔益鉉, 『勉菴集』(한국문집총간 325~326집), 한국고전번역원, 2003.
- 奇正鎭, 『蘆沙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31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3.
- 朴海量, 『聿修齋遺稿』(한국역대문집총서 2702집), 경인문화사, 1999.
- 田愚, 『良齋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332~336집), 한국고전번역원, 2003.
- 『蘆沙先生淵源錄』, 澹對軒, 1960.
- 『勉菴先生門人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刊寫年 未詳.
- 張三鉉 編, 『蕺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999.
- 曹錫日 編, 『菑薇淵源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以文社, 1967.
- 溪山淵源錄編纂所 編, 『溪山淵源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鮮和印刷所, 1966.
- 李道衡 編, 『華鳴淵源錄』, 南安齋, 1962.
- 林炳鎬 編, 『秀南高先生門人錄』, 方壺精舍, 1962.
- 張三鉉, 『화서학파의 증의효열록』, 양평문화원, 2002.
- 김봉곤, 「蘆沙學說에 대한 淵齋學派의 批判」, 『韓國思想史學』 33, 2009.
- _____, 「호남지역의 파리장서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 2015.
- 김상기, 「한말 일제하 내포 지역 기호학파의 형성」, 『한국사상사학』 제22집, 2004.
- _____, 「호서지역 화서학파의 형성과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제35집, 1999.
- 朴敏泳, 「勉菴 崔益鉉의 상소 항일투쟁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3.
- 박학래, 「蘆沙 奇正鎭의 性理說을 둘러싼 기호학계의 논쟁 - 「猥筆」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48, 2008.
- 이선아, 「『高山誌』(1964) 편찬과 고산지역 良齋門人의 역할」,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iterary groups of Myeonam(勉菴) Choi Ik-hyun(崔益鉉)*73)- Focus on Chaemiyeonwonlog(菑薇淵源錄) / Park, Hak-Rae

Since in the late 19th century, Choi Ik-hyun(1833~1906), who led the movement of Wijongcheoksa(衛正斥邪) and the righteous army movement(義兵運動), was one of the biggest literary groups among the Hwaseo school literary people. He has actively conducted his academic activities since he was around 40 years old and has formed a group of literary people who already exceeded 600 people in his lifetime. He developed his academic activities around his hometown Pocheon(抱川) area and Jeongsan(定山, currently Cheongyang; 青陽) area, which moved to old age, and his disciples worked with him on the front of the righteous army movement. In addition, they continued to carry out anti-Japanese movement after Choi's death,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training of their disciples in their study sites and produced more than 1,500 disciples. Through them, Choi's academic tradition continued to the fourth stage of discipleship, and the appearance was expanded to a group of literary people exceeding 2,500.

In the meantime, academia has not paid attention to Choi's teaching activities and his literary group. Unlike the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other schools that were active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research on Choi's literary group.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se previous studies, and considering the relatively poor interest in the literary group of various schools in the 20th century,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general aspects of Choi's literary group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to-late 20th century through the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6A3A01045347)

of region and age. Prior to Choi's analysis of literary group, I examined the activities of Choi's teaching,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literary group. The basic data of this study is ChamiYeonwonrok(菑薇淵源錄) published by Choi's disciples in 1967 and other literature materials such as Myeonamsunsaengmuninrok(勉菴先生門人錄) published earlier were also referr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terary figures in Chaemi Yeonwonrok, it was confirmed that Choi's academic tradition was inherited mainly by literary figures in Honam area, and that Choi's successors showed practical aspects based on strong anti-Japanese spirit as well as conscious efforts to protect Confucianis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mid-20th century. In particular, Choi's successors continued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the school, while showing the recognition and aspect distinguished from other Hwaseo school(華西學派) academic tradition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called the 'Myeonam school'(勉菴學派).

Key Words: Myeonam(勉菴) Choi Ik-hyun(崔益鉉), *Myeonamsunsaengmuninrok* (勉菴先生門人錄), *ChamiYeonwonrok*(菑薇淵源錄), Myeonam school(勉菴學派), Modern Korea Confucianism.